

‘언젠가 봄날에’ ‘버스킹 버스’ 타고 오월로

오월, 문화로 피어나다

〈3〉 오월연극

놀이때 신명 ‘언젠가 봄날에’
 행복자와 가족 ‘항쟁의 상흔’
 18일 5·18민주광장
 극단 토박이 ‘버스킹 버스’
 518버스 탄 의문의 남자는 누구
 25~26일 민들레소극장



‘언젠가 봄날에’



‘버스킹 버스’

여기 늙은 무당 박조금이가 있다. 그녀는 굿판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면 은행나무를 찾는다. 늘 하던 버릇이다. 그녀의 주변에 80년 5·18 당시 암매장당한 뒤 이승을 떠도는 시민군, 백구두, 여학생의 영혼들이 모여든다. 그동안 이들을 저승으로 데려가야 하는 임무가 주어진 저승사자는 회유와 협박을 한다.

‘언젠가 봄날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와 그 가족들의 사연을 매개로 항쟁의 상흔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로 탈것, 소리, 춤 등이 적절히 삽입됐다.

올해도 오월연극 ‘언젠가 봄날에’와 ‘버스킹(king) 버스’가 관객들을 찾아온다.

이번 공연은 ‘오월연극-오월 봄날, 오월 연극으로 만나다!’를 주제로 펼쳐지며 극단 토박이, 놀이때 신명, 극단까지가 참여한다.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광주시와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후원한다.

먼저 오는 18일(오후 5시 50분) 5·18민주광장에서 펼쳐지는 놀이때 신명의 ‘언젠가 봄날에’는 긴밀한 구성과 극적 재미가 돋보인다.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전개되는 서사와 전통 탈춤, 굿의 구조가 주제 의식과 긴밀히 조율한다. 특히 망자와 그 가족들의 한을 담고 있지만 작품이 마냥 무겁거나 딱딱하지 않다는 데 묘미가 있다.

마지막에서 아들을 쫓아 온 박조금은 사연을 듣

고 마침내 아들을 위한 이승에서의 마지막 길을 준비한다.

지정남을 비롯해 송민중, 김호준, 노은지, 정찬일, 김혜선, 강근희, 백민 등이 출연한다.

극단 토박이의 ‘버스킹(king) 버스’는 민들레소극장에서 25일, 26일 오후 7시30분에 관객을 만난다.

광주에서 운행되고 있는 518번 시내버스를 소재로 창작한 작품이다.

오랫동안 518번 버스를 운전한 안기사는 잦은 사고와 운행시간을 지키지 못해 해고를 당한다. 앞으로는 제대로 운전하겠다는 안기사의 간곡한 부탁에 회사는 하루 기회를 준다. 하루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제대로 운전을 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진다.

드디어 518버스에 승객들이 타기 시작한다. 여고생, 할머니, 청년 그리고 의문의 한 남자 등. 승객들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안기사는 이번에도 운행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그러다 의문의 남자가 80년 당시 계엄군이었던 사실이 밝혀지는데...

극작과 연출은 박정운이 맡았으며 출연진으로 임해정, 강중원, 김정훈, 고영욱, 이종경, 최혜민 등이 무대에 오른다.

토박이 관계자는 “518버스의 상징성, 버스노선에 깃든 80년 오월 이야기를 비롯해 80년 5월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담아내기 위해 기획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연 외에 기획 토론도 예정돼 있다. 오는 31일(오후 4시)에는 ‘오월연극-지속가능성과 성장에 대해’를 주제로 오월극의 현재를 점검한다. 5·18민주항쟁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 몇몇 극단들이 지켜오고 있는 오월극을 어떻게 잇고 발전시켜나갈지 토론을 벌인다.

김도일 박사와 임인자 독립기획자가 발제를 하고 박재용(5.18기념재단 오월길문화사업단 부장), 오성환(푸른연극마을 대표), 조수현(면밀), 임해정(극단 토박이 대표), 김호준(극단 깍지 대표), 정찬일(놀이때 신명 대표)이 토론자로 나선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도 즐기고 상품도 만나요...아시아컬처마켓 ‘도시를 담다’

ACC재단, 33개 부스 참여
 19~20일 아시아문화광장



지난해 열린 아시아컬처마켓 장면.

〈ACC재단 제공〉

도시를 매개로 아시아와 지역을 연결하는 행사가 열린다. 일명 아시아컬처마켓.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아시아문화광장에서 펼쳐지는 아시아컬처마켓은 주제를 ‘도담: 도시를 담다’로 정했다.

ACC재단은 다양한 아시아 문화도 즐기고 개인 맞춤형 상품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올해 마켓은 33개 부스가 참여해 아시아 문화에 방점을 두고 개인의 취향을 고려했다.

무엇보다 체험 프로그램이 볼 만하다. 지역의 문화 창작자와 함께 직조를 비롯해 가죽, 세고, 비누 등 수공예를 통해 개인 맞춤형 상품을 만드는 코너도 마련돼 있다. 특히 현장에서는 네임택과 자수키링, 테라리움 등의 나만의 문화상품도 만들어 볼 수 있다.

아시아의 아시아장을 느낄 수 있는 아시아 컬처존도 예정돼 있다. 광산구청 협력으로 광주전남필리핀공동체, 광주이주여성(중국) 등과 함께 진행하

며 이곳에서는 아시아의 전통문화 상품과 먹거리 등을 만날 수 있다. 아시아의 벵골시장에서는 다양한 생활소품 구매도 가능하다.

행사기간에는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19일 오후 7시 5·18민주광장에서는 우리 전통 국악기를 활

용한 길놀이 퍼레이드가 펼쳐지며 20일에는 광주관광재단과 연계한 K-POP 공연, 유명 유튜브 채널의 거리노래방이 펼쳐진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순수한 동심의 세계로 ‘소울메이트&’ 전

김동아·박경희·유소연·이영실·정민석 참여...31일까지 주안미술관



정민석 작 ‘가족’



유소연 작 ‘한잔의 위로’

영혼의 짝을 일컫어 소울메이트라고 한다. 아주 가까운 친구 또는 연인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이들에게도 소울메이트가 있다. 혹자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소울메이트가 있는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소울메이트는 예쁜 강아지일 수도, 만화캐릭터일 수도 있다.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고 그것으로부터 위안을 얻는다면 소울메이트인 것이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자연스레 아이가 된 느낌이 든다. 순수한 동심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귀엽고, 예쁘고, 화사하고, 상상력이 넘친 작품 앞에서 근엄함은 설 자리를 잃는다.

주안미술관의 기획전시 아트키가 5의 ‘소울메이트&’ 전을 보고나면 절로 미소를 짓게 된다. 오는 31일까지 김동아, 박경희, 유소연, 이영실, 정민석 모두 5명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김동아 작가는 ‘어린이와 강아지의 모습’ 등에서 동심을 매개로 소소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박경희 작가는 ‘박토끼’라는 이름의 부캐를 자신에게 대입해 귀엽고 해피한 모습을 표현한다.

유소연 작가는 당나귀를 통해 많은 시간 일을 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을 소환하며 이영실 작가는 유쾌한 캐릭터와 명품포도 등을 매개로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정민석 작가는 어린시절 좋아했던 공룡을 모티브로 자신의 모습과 공룡을 닮은 아이들의 모습을 초점화한다.

김소현 학예사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함께 공감하고 의지할 수 있는 나만의 절친을 마주하며 혼자가 아닌 ‘함께’ 즐기는 전시를 기획했다”며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순수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힐링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산맥작품상에 이규리 ‘월요일의 도시락’

시산맥시문학상은 강재남·정재리 시인 공동 수상



이규리 시인

제13회 시산맥작품상에 이규리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월요일의 도시락’이며 상금 300만원.

계간 시산맥은 11일 올해의 시산맥작품상에 이규리 시인의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산맥작품상은 지난 한 해 계간 시산맥에 발표된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이번에는 기 추천된 작품상 후보작품 중 14편이 본심에 올랐다.

심사위원들은 수상작에 대해 “토마토가 계단을 만들고 명랑하게 굴러간다는 역설적인 발상의 전환이 흥미롭다. 쏟아지지 않았으면 그렇게 힘차게 굴러가 보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절망을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이 독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시”라고 평했다.

이규리 시인은 1994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했으며 시집으로 ‘앤디 위홀의 생각’, ‘뒤틀림’과 산문집 ‘시의 인기적’ 등을 펴냈다.

또한 올해 세 번째로 개최하는 시산맥시문학상에는 강재남, 정재리 시인이 공동으로 수상했다.

수상작은 ‘운동 비라서’, ‘후일담’이며 상금은 각각 200만원.

시산맥시문학상은 시산맥 회원으로 전년도 한 해 동안 문예지에 발표한 작품 중 1편을 심의하며 이번에는 총 130여 명이 응모했다.

수상자인 강재남 시인은 2010년 ‘시문학’으로 등단했으며 동주문학상, 한국동서문학작품상을 수상했다. 정재리 시인은 2017년 ‘서정시학’으로 등단해 시집 ‘흰 바탕에 흰발은 무슨 색으로 그리나오’를 펴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7일 서울 강호 화랑에서 열리는 전국 시산맥 행사에서 펼쳐지며, 2023년 문학뉴스&시산맥 신춘문예 당선자인 서이교, 최보슬 시인의 시상식도 있을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에그린 백일장·사생대회’ 6월 3일 ‘한국시화박물관’

제1회 시에그린 전국 백일장·사생대회가 진도군 임회면 시에그린한국시화박물관에서 열린다. 오는 6월 3일 오후 1시.

이번 시에그린 백일장·사생대회는 시에그린한국시화박물관을 비롯해 여귀산 미술관과 진도수석박물관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참가대상은 전국 초, 중, 고, 일반인(청소년 대학생 포함)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제는 당일 발표한다. 백일장은 시와 시조, 산문이며 사생은 상상화가 포함된다.

희망자는 당일 현장 접수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단 필기구, 크레파스나 물감 등은 각자 지참해야 한다.

시상은 학생부와 일반인을 나누어 각각 시상하며 대상 6명, 최우수상 6명, 우수상 12명,佳作 30명을 뽑는다. 일반부 대상은 계간 ‘열린시학’ 한국예술 작가상으로 등단(시, 수필, 화가) 가능하며 입상작 중 우수작품은 ‘열린시학’, ‘시조시학’, ‘한국동시조’에 발표된다. 문의 061-542-100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5월 나들학교, 13일 ‘태봉마을과 동적골을 가다’ 걷기행사

“주민 14인이 구성된 태봉마을을 아시나요? 중무장한 채 배고픈다리를 지닌 전사들, 우리 지역 방위군이요 불리다오. 한밤중 마을 뒤 대숲으로 퇴각하던 계엄군의 군홧발소리가 어쩌나 크게 들리던지...”

5월 나들학교가 ‘태봉마을과 동적골을 가다’를 주제로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13일 오전 9시.

집결 장소는 동구 흥림교 앞(의재로 84, 중심사 방향 시내버스 흥림교 하차, 파리바게트 옆)이며 걷는 길은 흥림교(배고픈다리)-태봉마을-동적골까지다.

걸잡이는 김태현 전 이야기농부 협동조합 기획

팀장, 전영원 시민플랫폼 ‘나들’ 공동대표, 이상필 동산대 교수(당시 마을 주민-대학 1학년)가 맡는다.

나들학교 관계자는 “이번 걷기는 80년 5월 당시 항쟁과 의미를 되새기고 마을이 지닌 역사성과 공동체성을 되새겨보기 위해 마련했다”며 “참가자들이 함께 걸으며 아름다운 오월의 마을, 태봉마을에 담긴 그날의 기억과 광주정신 등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준비물은 간단한 개인 물과 간식이며 이번 행사는 시민플랫폼 나들, (사)광주마당, 사회복지작소터, (주)포래집단, 서광클럽이 함께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